

돈을 쓰는 용기

나는 돈을 쓰는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혼자 먹을 때에는 1만원 이하, 친구와 둘이서 술을 먹을 때에는 총합 8만원 이하. 만약에 해당 월에 많은 소비를 했으면, 혼자 먹을 때에는 6천원 이하 등으로 바뀐다. 자본금을 고려해서 소비하는 것은 현명한 소비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하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나에게 했던 것과 같은 소비 패턴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나의 이성이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부모님에게 더 좋은 음식, 영양제 등을 사드리고 싶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가고 싶다. 예전에 아버지가 영양제를 사달라고 해서 사려고 인터넷에 열심히 좋은 영양제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나는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고 있었다. 이런 내가 싫었다. 다른 예로, 친구들이 63빌딩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에 나는 참여한다고 투표를 하지 않았다.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의 추억을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웠다.

9월 10일 추석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셨다. 각자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2학년 선배인 분께서 계산하셨다고 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그분에게 가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 선배는 우리의 술자리를 계산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다.

“내가 여기 계산한 이유는 종욱이 때문이야”

나는 당황했다. 후배와 엄청 친하다고 하지만 10명이 먹은 술자리를 계산할 수 있을까? 심지어 교사 월급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내가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배풀고 쓰고 싶은데, 이성이 막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다. 또 고민했다. 하나의 방법을 떠올렸다. 바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간단한 예시로, 담배가 해로운 것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어서 계속 피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써보기로 했다. 이마트에서 30만원 나온 쇼핑 비용을 내가 계산했다. 아웃백에서 가족 식사 비용 20만원 정도를 내가 지불하려고 했지만 동생이 먼저 해버렸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큰 비용을 쓰다보면 계획을 신경 쓰는 이성의 힘이 줄어들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감성이 커져서 행동으로 보여질 것이다. 따라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성을 이겨 내면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